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havior on
Child Self-Esteem :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and Korean Mothers

최형성(Hyung Sung Choe)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 between young children's self-esteem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husband support, parenting behavior, and mothers'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onal role of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havior. Participants were 762 young child-mother dyads in Busan and Gyungnam, Korea. Mothers were Korean and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from China, Philippines, and Vietnam. Questionnaires were based on Choe and Chung (2001), Hong (1995), Shin (1996), Lee and Song (1991), and Lee (199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parent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were significant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husband support and depression and child's self-esteem in Korea mothers, but in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The results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parenting for child self-esteem in both groups.

Key Words :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여성결혼이민자), parenting self-efficacy(양육효능감), parenting behavior(양육행동), husband support(남편의 지원), self-esteem(자존감), depression(우울).

I. 서 론

최근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의 1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07), 2008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는 2007년에 2007년 대비 31%나 증가하였다고 한

¹⁾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g Sung Cho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illa University, San 1-1, Gwaebop-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E-mail : hyungsung@silla.ac.kr

다(지방행정국, 2008). 자녀의 출산을 통한 한국에서의 정착 기틀 마련 및 종교적 특성에 의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며(최형성, 2009) 이들의 수가 2020년경이 되면 167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여성가족부, 2006)이 있을 정도로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수적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수적 증가와 함께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잉행동장애 및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폭력적인 특성(교육인적자원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 취학 아동의 17.6%가 겪는 왕따의 경험(보건복지부, 2005) 등은 이들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빈곤층의 잠재적인 문제들과 복합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우려의 현실화와 문제 행동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변인 중 하나가 자존감이라는 변인이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Rosenberg, 1979)로써 행동문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oopersmith, 1967; Mussem, Conger, & Kagan, 1980). 특히 어린 시절의 자존감은 성인이 된 이후의 인성발달과 행동수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최형성, 2007)으로 발달적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존감 형성의 주요 근원은 가족이며, 가족 중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은 부모이다(Brody, Flor, & Gibson, 1999).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형성 및 발달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양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인 양육효능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최형성, 2006). 양육

효능감이란 Bandura(1982, 1997)의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개념으로써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능력에 대한 신념이 양육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의 양육 능력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강력한 경향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Eccles & Harold, 1996; Shumow & Lomax, 2002). 또한 높은 양육 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 예를 들면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행동,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 등과 관련된 반면, 낮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 예를 들면 학대, 통제적 양육행동, 알고 있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지 않음 등과 관련되어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Bassler, & Brissie, 1992;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양육의 제 변인, 예를 들면 기질, 사회적 및 배우자 지원, 우울, 빈곤, 스트레스 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최형성, 2007; Coleman & Karraker,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Machida, Talyor, & Kim, 2002; Teti & Gelfand, 1991). 제 변인 중 특히 배우자의 지원의 경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양육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데(최형성, 2002; Shapiro & Mangelsdorf, 1994; Teti & Gelfand, 1991), 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지원만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보고(Shapiro & Mangelsdorf, 1994)될 정도로, 남편의 지원은 양육효능감과 매우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변인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

는 연구(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Feiring, Fox, Jaskir, & Lewis, 1987)에 의해 어머니가 처한 상황에 따라 남편의 지원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도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들(Coleman & Karraker, 1997; Surkan, Kawachi, Ryan, Berkman, Vieira, & Peterson, 2008; Teti & Gelfand, 1991)은 대체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과 부적 인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물고 우울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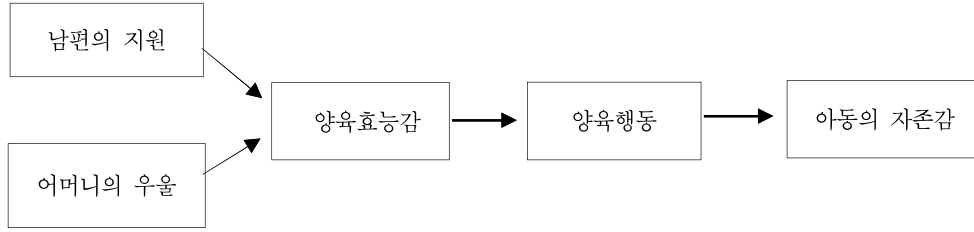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존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Anderson & Hughes, 1989; Dubios, Eitel, & Felner, 1994; Young, 1993)은 애정적·온정적 양육행동의 경우 대체로 아동의 자존감과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으나, 거부적·제재적·통제적 양육행동과 허용적·방임적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자존감과 무관, 정적 관계, 부적 관계 등 다양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무엇이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관계인가 하는 문제와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적 결과들을 해석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나 문화가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라 사료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한국어머니들과는 달리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남편을 오랫동안 사귀고 난 후 결혼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며, 결혼이전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관

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러한 익숙하지 않음은 여전히 이들의 한국 생활을 힘들게 한다. 또한 이들 대다수의 남편들은 높은 연령, 빈곤, 무직, 재혼, 폭력사용, 이상한 성적 취향 등(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으로 인해 한국여성이 결혼을 기피한 대상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 의해 무시당하거나(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시댁식구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오해받으며 남편과의 의사소통도 자유롭지 않고(창원여성의 전화, 2007), 자의든 타의든 자녀 양육 활동에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는 경향(구수연, 2007; 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특수 상황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한국어머니들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양육의 제 변인, 특히 남편의 지원,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어떻게 매개적 역할 수행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양육의 제 변인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한 간결한 모형을 구축하였다<그림 1>.

또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연령이 대체로 현재 저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어 있는 현실(보건복지부, 2005; 승혜경, 2008)을 고려하여 저 연령의 아동을 둔 어머니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집단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을 둔



<그림 1> 아동의 자존감 기본모형

한국어머니 집단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집단을 대상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최형성, 2009)는 그동안 부족하였던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경향성 파악에는 기여하였으나, 이 집단이 한국어머니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털어내고 그 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자존감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과 한국어머니 집단 아동의 자존감 모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는 두 집단의 양육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이해를 돕고, 복지적 측면에서는 두 집단에게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 특히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측면에 차이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우울, 남편의 지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우울, 남편의 지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여성결혼이민자(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양육과 아동발달, 그리고 한국 어머니의 양육과 아동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남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머니 집단(한국어머니 194명, 그녀의 아동 194명) 388명(194세트)과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여성결혼이민자 187명, 그녀의 아동 187명) 374명(187세트) 등 총 762명(381세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두 집단 모두 남편이 한국인일 것, 2)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출신일 것, 2)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과 나이든 유아(유치원 5세반 기준)일 것, 3) 자녀가 여러 명일지라도 단 1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것, 4) 아동과 양친이 함께 살고 있을 것, 5)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응답할 것이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일본을 제외하였을 때 이 국가들이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 중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교육인적자원부, 2006)로 그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며 또한 각국어로 번역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변인	한국어머니	여성결혼이민자	변인	한국어머니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n, %)			아동의 출생순위(n, %)		
한국	194(100)	0	첫째	103(53.7)	132(71.0)
필리핀	0	98(52.4)	둘째	75(39.0)	49(26.3)
베트남	0	9(4.8)	셋째	13(6.8)	5(2.7)
중국	0	80(42.8)	넷째	1(0.5)	0
어머니 학력(n, %)			아버지 학력(n, %)		
초졸	0	1(0.6)	초졸	0	19(10.7)
중졸	1(0.5)	24(13.2)	중졸	1(0.5)	31(17.5)
고졸	85(44.5)	68(37.3)	고졸	66(34.2)	94(53.2)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46(24.1)	30(16.5)	전문대 졸업 및 대학중퇴	37(19.2)	16(9.0)
대졸	54(28.3)	47(25.8)	대졸	77(39.9)	13(7.3)
대학원졸	5(2.6)	12(6.6)	대학원졸	12(6.2)	4(2.3)
어머니 직업(n, %)			수입(n, %)		
무	106(56.1)	89(50.0)	100만원 이하	3(1.7)	36(21.7)
유	83(43.9)	89(50.0)	101-150만원	11(6.1)	39(23.5)
아버지 직업(n, %)			151-200만원	18(10.0)	45(27.1)
무	1(0.5)	22(12.3)	201-250만원	32(17.8)	13(7.8)
유	192(99.5)	157(87.7)	251-300만원	28(15.6)	13(7.8)
아동의 성별(n, %)			301-350만원	23(12.8)	8(4.8)
남아	107(55.1)	93(49.7)	351-400만원	24(13.3)	6(3.6)
여아	87(44.9)	94(50.3)	401만원 이상	41(22.8)	6(3.6)
아동 평균연령 (SD, 범위)	6.38세 (1.46, 4세~9세)	7.16세 (1.66, 5세~10세)	아버지 평균연령 (SD, 범위)	39.40세 (4.01, 28세~52세)	44.49세 (4.64, 29세~57세)

* 배경변인별 무응답 제외 후 빈도수(백분율) 산출

설문지 제작 때문이다. 한편 아동의 최저 연령을 유치원 만 5세만 이상으로 한정지은 것은 아동 응답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통해 측

정되었다. 37문항, 5개 하위 요인(‘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총 점수가 37점에서 18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한국 어머니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 여성결혼이민자는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홍계옥(1995)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26문항, 4개 하위요인('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각 차원별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해당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양육행동 차원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 신뢰도(Cronbach's α)는 한국 어머니의 경우 .83, .62, .80, .82,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85, .62, .84,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가 지각하는 남편의 지원

남편의 지원은 신숙재(1997)의 사회적 지원 척도 중 남편의 협력영역으로 측정되었다. 13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총 점수가 13점에서 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남편의 지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한국 어머니의 경우 .9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Beck(1967)의 Depression inventory를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번안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등을 측정한다.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는 이 척도는 총 점수는 0점에서 3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 어머니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의 자존감

아동의 자존감은 Harter(1982)의 역량지각척

도를 기초로 개발된 이주리(1994)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총 18문항, 3개 요인('인지', '사회', '신체'), 4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총 점수가 18점에서 72점까지이며, 원래는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지각은 낮은 것을 의미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각 점수를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한 결과 한국 어머니 아동의 경우 .84,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경우 .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한국어머니 대상 연구절차

한국어머니 대상 연구조사는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 등 연속적이지 않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고 회수되었으며,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우울, 남편의 지원에 대한 설문지는 어머니가,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문지는 아동이 응답하였다. 간혹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교사나 연구자 및 전공 관련자들이 질문 문항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지급되었다. 설문지는 배부된 200세트(400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응답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는 6세트를 제외한 194세트(388부)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연구절차

여성결혼이민자용 설문지는 한국어가 능숙한 중국 유학생 2명, 베트남 유학생 3명, 필리핀 유학생 2명과 영어에 능숙한 한국 학자 1명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통해 산출된 한국어 원본과 역번역본의 대조 및 논의를 통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되었다. 설문지 조사 및

회수 과정은 한국어머니 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이 집단은 조사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문조사를 실시해야하므로 2007년 12월, 2008년 2월, 2008년 7월 등 연속적이지 않은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는 해당지역 교육청과 유치원, 학교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성결혼이민자용 설문지는 담임교사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아동을 통해 전달되고 돌려받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설문지 응답을 거부하면 아동 역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설문지는 설문지 완료에 관한 담임교사와의 전화 통화 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에 응해주는 대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설문지는 배부된 202세트(404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응답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는 15세트를 제외한 187세트(374부)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과 AMO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과 2를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와 pearson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었으며 경로분석이 실시되었다.

III 연구결과

1. 한국어머니 집단의 경로 분석 모형

1)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어머니 집단 변인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들은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와 함께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 영역, 남편의 지원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4, .39, .56, .29, .60, p<.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영역들은 상호 간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2 \sim .65, p<.001$), 남편의 지원은 양육행동 각

<표 2> 한국어머니 집단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1.00							
2	.64***	1.00						
3	.39***	.62***	1.00					
4	.56***	.65***	.47***	1.00				
5	.29***	.54***	.60***	.42***	1.00			
6	.60***	.56***	.44***	.52***	.31***	1.00		
7	-.30***	-.32***	-.35***	-.38***	-.29***	-.26***	1.00	
8	.08	.22**	.15	.18*	.12	.09	-.15	1.00
평균	3.77	4.09	3.96	3.60	4.23	3.82	2.33	3.17
표준편차	.43	.43	.52	.51	.58	.56	.30	.48

*1.양육효능감, 2.합리적 지도, 3.한계설정, 4.애정성, 5.반응성, 6.남편의 지원, 7.어머니의 우울, 8.아동의 자존감
* $p<.05$ ** $p<.01$ *** $p<.001$

<표 3> 한국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존감 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Q	CFI	TLI	RMSEA(LO 90 HI 90)
기본모형							
합리적 지도	24.194	5	.000	4.839	.917	.834	.141(.088 .200)
한계설정	30.067	5	.000	6.013	.846	.692	.161(.109 .219)
애정성	31.121	5	.000	6.224	.874	.747	.165(.112 .222)
반응성	17.822	5	.003	3.564	.904	.809	.115(.060 .175)
수정모형1							
합리적 지도	7.686	4	.104	1.921	.984	.960	.069(.000 .142)
한계설정	15.986	4	.003	3.996	.926	.816	.125(.065 .191)
애정성	15.259	4	.004	3.815	.945	.864	.121(.061 .188)
반응성	8.036	4	.090	2.009	.970	.925	.072(.000 .145)
수정모형2							
한계설정	2.191	3	.534	.730	1.000	1.017	.000(.000 .108)
애정성	1.749	3	.626	.583	1.000	1.020	.000(.000 .099)

영역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6, .44, .52, .31, p<.001$).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각 하위영역, 남편의 지원과는 매우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0, -.32, -.35, -.38, -.29, -.26, p<.001$). 아동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2, p<.01, r=.18, p<.05$).

2) 경로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모형이 조사한 자료와 부합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행동의 차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양육행동의 차원별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에 근거한 기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은 최대가능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적합도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 가장 바람직한 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CFI, TLI(NNFI), RMSEA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CFI와 TLI(NNFI)의 경우 .9를 넘으면 좋은 적합도이며, RMSEA의 경우 .05보다 낮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낮으면 괜찮은 적합도라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모형의 적합 정도 판단 근거로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카이스퀘어(χ^2)의 값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 오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이순목, 1990; 홍세희, 2000) 합치도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정도의 파악을 위하여 산출되었다.

각 기본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론적 근거와 모형의 간명성, 수정지표를 고려하여 합리적 지도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이 합리적 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 수정모형 1, 한계설정과 애정성, 반응성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이 한계설정과 애정성,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 각각의 수정모형 1을 구축하였다. <표 4>에 본 연구에서 산출된 수정지표가 제시되었다. 수정모형 1의 분석 결과, 합리적 지도와 반응성의 경우 대체로 만족스런 결과가 나타났으나, 한계설정과 애정성 모형의 경우 적합도 지수들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으므로 남편의 지원이 한계설정과 애정성에 미치는

<표 4> 한국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존감 모형 수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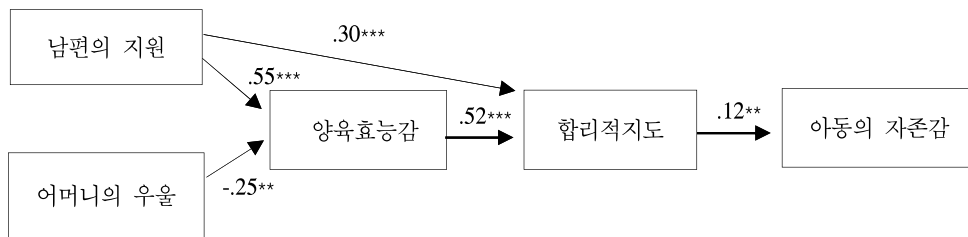
경로			M.I.	Par change
합리적 지도	남편의 지원	→	10.126	.188
한계설정	어머니의 우울	→	12.357	-.396
	남편의 지원	→	9.659	.214
애정성	어머니의 우울	→	13.858	-.343
	남편의 지원	→	9.520	.173
반응성	어머니의 우울	→	8.684	-.369

영향을 추가한 수정모형2를 구축하였다. 한계설정과 애정성 수정모형 2의 분석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들이 산출되었다. <표 3>에 각 수정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각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한국어머니 집단 아동의 자존감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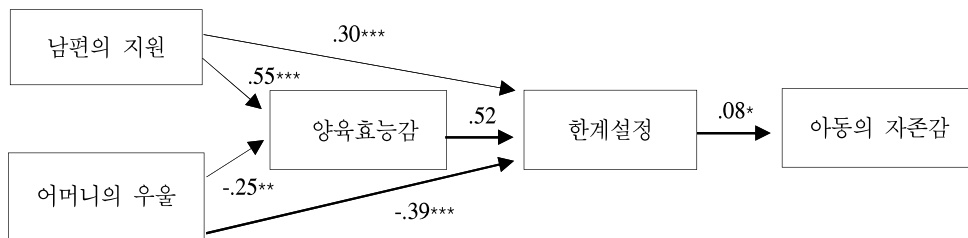
합리적 지도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

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합리적 지도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효능감은 합리적 지도를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남편의 지원은 합리적 지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설정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과 한계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계설정만을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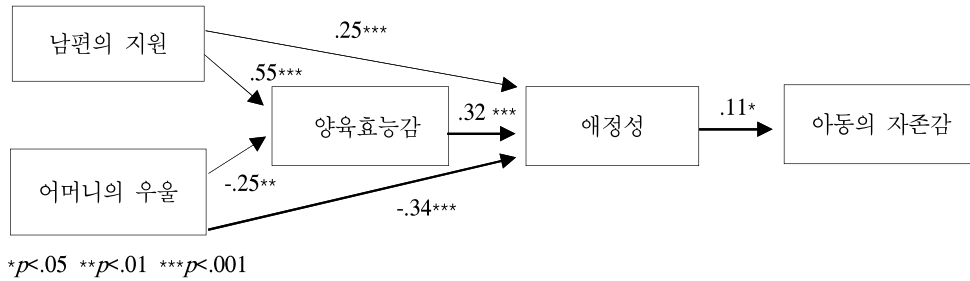
** $p < .01$ *** $p < .001$

<그림 2> 한국어머니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합리적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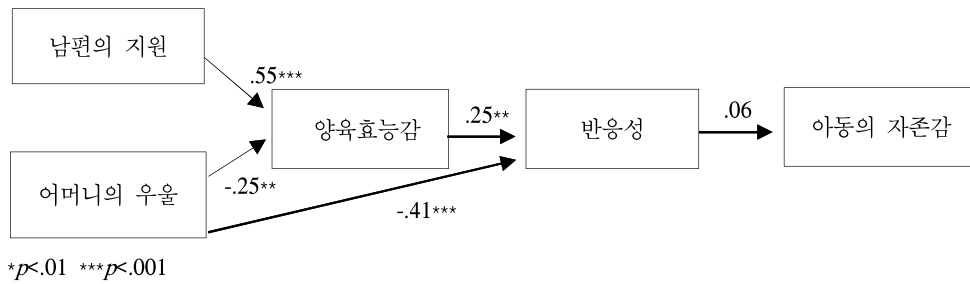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한국어머니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한계설정



<그림 4> 한국어머니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애정성



<그림 5> 한국어머니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반응성

으로 나타났다. 애정성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애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효능감은 애정성을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 모형의 경우,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원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만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응성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반응성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다.

각 모형의 다중상관관계치를 살펴 본 결과 합리적 지도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5%이었고, 합리적 지도에 대한 설명력은 46%이었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설정의 경우 아동의 자

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2%이었고, 한계설정에 대한 설명력은 27%,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성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3%이었고, 애정성에 대한 설명력은 41%,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1%이었고, 반응성에 대한 설명력은 13%이었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경로분석 모형

1)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변인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들과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1.00							
2	.68***	1.00						
3	.63***	.72***	1.00					
4	.64***	.69***	.63***	1.00				
5	.45***	.68***	.64***	.43***	1.00			
6	.62***	.43***	.45***	.43***	.30***	1.00		
7	-.20**	-.17*	-.14	-.09	-.22**	-.15*	1.00	
8	.04	.06	.13	-.01	.06	.18*	-.02	1.00
평균	4.03	4.10	3.98	3.77	4.16	3.83	2.64	3.02
표준편차	.54	.50	.52	.58	.55	.67	.78	.48

* 1.양육효능감, 2.합리적 지도, 3.한계설정, 4.애정성, 5.반응성, 6.남편의 지원, 7.어머니의 우울, 8.아동의 자존감
 * 양육효능감,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 간의 상관계수, 이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최형성(2009)에서 인용됨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 영역, 남편의 지원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68, .63, .64, .45, .62, 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영역들은 상호 간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43 \sim .72, p < .001$), 남편의 지원은 양육행동 각 영역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43, .45, .43, .30, p < .001$).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효능감, 반응성, 합리적 지도, 남편의 지원과는 매우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0, -.22, p < .01, r = -.17, -.15, p < .05$). 아동의 자존감은 남편의 지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8,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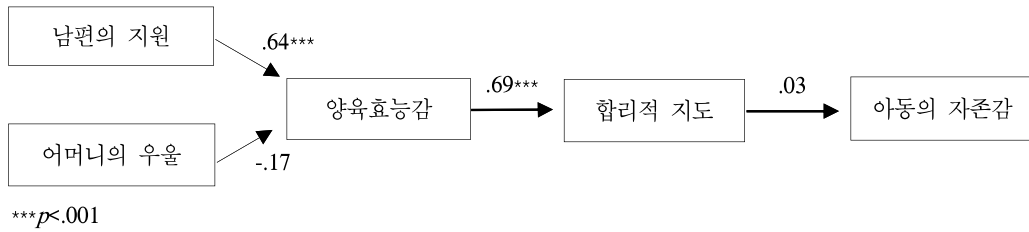
2) 경로분석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 한국어머니 집단과 마찬가지로 양육행동의 각 차원별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대가능법 사용, CFI, TLI, RMSEA에 근거한 적합도 판단, 정도의 파악을 위한 카이스퀘어(χ^2)의 값 산출 등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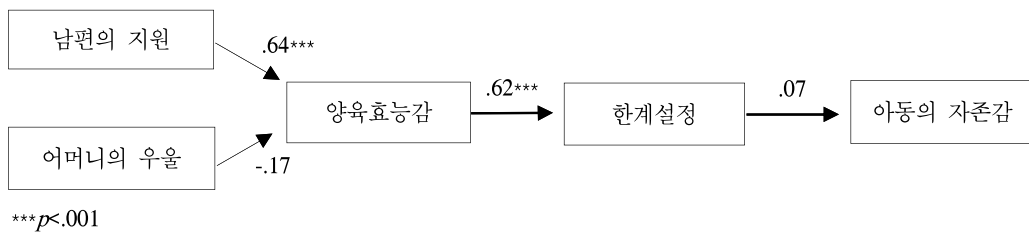
각 기본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반응성의 경우 RMSEA에서 .08을 넘는 지수가 나타나 다소 아쉬운 수준임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RMSEA < .10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낸다는 홍세희(2000)의 견해와 모형의 타당성은 어느 하나의 지수에

<표 6>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존감 모형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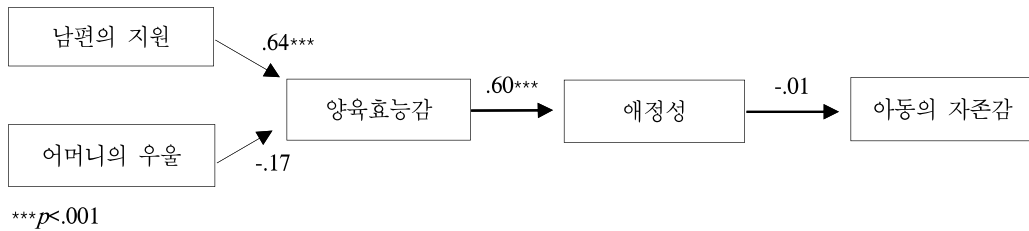
	χ^2	df	p	Q	CFI	TLI	RMSEA(LO 90 HI 90)
기본모형							
합리적 지도	7.854	5	.164	1.571	.987	.973	.055(.000 .126)
한계설정	9.023	5	.108	1.805	.979	.959	.066(.000 .133)
애정성	9.432	5	.093	1.886	.977	.955	.069(.000 .136)
반응성	11.662	5	.040	2.332	.953	.906	.085(.017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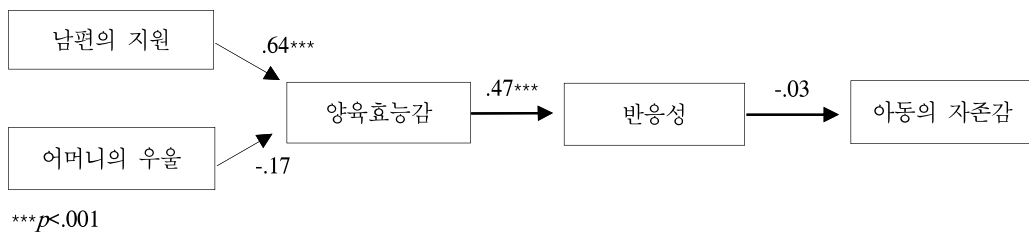
<그림 6>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합리적 지도



<그림 7>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한계설정



<그림 8>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애정성



<그림 9>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자존감 모형과 그 경로계수 : 반응성

의해 전적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산출된 적합도를 전반적으로 살펴 판단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타당한 모형으로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각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 집

단 아동의 자존감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에 제시하였다.

각 양육행동 모형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편의 지원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각 양육행동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차원은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 역시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다중상관자승치를 살펴 본 결과 합리적 지도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0%이었고, 합리적 지도에 대한 설명력은 46%이었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설정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2%이었고, 한계설정에 대한 설명력은 40%,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성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0%이었고, 애정성에 대한 설명력은 41%,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성의 경우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0%이었고, 반응성에 대한 변인들의 20%이었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린 아동을 둔 한국어머니 집단과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과정과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고 두 집단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게 제공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차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

작되었다.

먼저 한국어머니 집단과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한국어머니 집단의 경우는 양육행동의 차원에 따라 그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양육행동의 차원에 상관없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등 두 집단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머니집단의 합리적 지도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과 합리적 지도를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지도는 합리적인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한계설정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은 한계설정을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다. 애정성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효능감과 애정성을 매개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애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반응성의 모형의 경우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은 반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은 모든 양육행동 모형에서 남편의 지원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각 양육행동 차원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한국어머니의 한계설정 모

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형들에서 남편의 지원이 양육행동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Coleman & Karraker, 1991; Shapiro & Mangelsdorf, 1994; Teti & Gelfand, 199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어머니 집단의 한계설정 모형의 경우만 매개적 역할이 입증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는 관계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대체로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어 왔다(최형성, 2006, 2007; 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Coleman & Karraker, 1991; Desjardin, 2003; Eccles & Harold, 1996; Hoover-Dempsey & Sandller, 1997; Shapiro & Mangelsdorf, 1994; Shumow & Lomax, 2002; Teti & Gelfand, 1991). 간혹 두 변인 간에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보고한 연구(Brody *et al.*, 1999)나 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Dumka, Storerzinger, Jackson, & Roosa, 1996)로 인해 두 변인 간의 무관한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한국어머니 집단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원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가 확보된 후에야 정확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한국어머니 집단에서는 남편의 지원과 어머니의 우울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육행동의 각 차원에 대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왜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두 집단 간을 비교하여 살펴 본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발견은 이 두 집단의 양육에 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은 한국어머니 집단의 경우 한계설정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에서는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울에 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국어머니 집단의 한계설정 모형의 경우 양육효능감과 한계설정 간의 관계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논의는 첫째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이 양육효능감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결과이다. Bandura (1982, 1987)에 의해 자아효능감이 생리적·정서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체제가 발표된 이래로 우울과 양육효능감은 많은 연구들(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Surkan *et al.*, 2008; Teti & Gelfand, 1991)을 통해 매우 관련이 높은 변인임이 입증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만 우울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비교할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진행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Elder *et al.*, 1995)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때, 본 연구

의 우울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 역시 인종이나 그에 따른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반응성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은 각 차원 모두 아동의 자존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나타났다. 한국어머니 집단은 합리적 지도, 애정성, 한계설정 모두 아동의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양육행동이 그 차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동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의 경우와 관련된 수용적·애정적·지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Gecas & Schwalbe, 1986; Mondell & Tyler, 1981)가 보고되고 있고, 한계설정과 관련된 통제적 양육행동이나 반응성과 관련된 허용적·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 부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 그리고 관련이 없다는 결과로 나뉘어 진다(최형성, 2006; Anderson & Hughes, 1989; Dubios, Eitel, & Felner, 1994; Young, 1993).

한국어머니 집단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양육행동의 차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동 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는 모든 양육행동 차원에서 아동의 자존감과 관련이 없음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체로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 영역에서조차 아동의 자존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이러한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기

인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선행연구(구수연, 2007; 전홍주 외, 2008)들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양육의 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심층 면접해 보면 이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어 자녀와의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도 친모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무시하고(김민정 외, 2006), 자신의 형제나 친지에서 도움을 구할 지언정 여성결혼이민자인 어머니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향(전홍주 외, 2008)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요인이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무관한 관계에 대한 결과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무관한 관계는 아동의 자아 갈등, 낮은 자존감, 상대적인 열등감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구축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높은 양육효능감과 바람직한 양육행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시 사회적 지원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자들은 관계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과 한국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공유된 변량으로 인한 결과 해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를 세트로 측정하였다. 그 중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응답함으로써 양육행동에 대한 객관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 그리고 제한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관찰, 아동이나 남편 등 타인에 의한 응답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두 집단에서 양육행동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모형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는 각 집단을 위한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머니 집단과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양육과 아동의 자존감에 관해 살펴본 본 연구는 한국어머니와 비교되는 여성결혼이민자 양육과정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차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농림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여성가족부 · 중앙인사위원회 · 기획예산처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12), 95-124.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방안.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승혜경(2008).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및 방과 후 생활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여성가족부(2006). 결혼 이민자-자녀 모두 소중한 한국인. 초대마당, 현장시선, 정책현장. <http://moge.korea.kr>에서 2007년 4월 13일 인출.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 성원사.
이영호 ·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1), 98-113.
이주리(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전홍주 · 배소영 · 광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161-186.
지방행정국(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주민 실태조사 결과.
창원여성의 전화(2007). 멘토링 프로그램 자료집.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최형성(2006).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의 제 변인들에 대한 모형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4(11), 79-89.
최형성(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

- 의 매개적 역할 :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8(3), 77-100.
- 최형성(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0(3), 197-211.
- 최형성 ·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통계청(2006). 인구동태.
- 홍계옥(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애착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홍세희(2000). 특별기고 :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19(1), 161-177.
- Anderson, M., & Hughes, H. M. (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 A. T. (1967).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Y. : Harper & Row.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 (197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Brody, G. H., Flor,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Desjardin, J. L. (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bio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ccles, J., & Harold, R. (1996). Parent-school involve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 *Teachers College Record, 94*, 568-587.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Feiring, C., Fox, N. A., Jaskir, J., & Lewis, M.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infant risk statu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00-405.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7-46.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oover-Dempsey, K., Bassler, O., & Brissie, J. (1992). Explorations in parent-schoo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Review, 85*, 287-294.
- Hoover-Dempsey, K., & Sandler, H. (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

- 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 3-42.
- Leerkes, E. M., & Crokenberg, S. C. (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Machida, S., Taylor, A. R., & Kim, J. (2002). The role of maternal belief in predicting home learning activities in head start families. *Family Relations*, 51(2), 176-185.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 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Mussem, P. H., Conger, J. J., & Kagan, J. (1980).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5th). New York : Harper & Row.
- Rog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 (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 Shumow, L., & Lomax, R. (2002). Parental efficacy : Predictor of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 outcomes.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2(2), 127-150.
- Surkan, P. J., Kawachi, I., Ryan, L. M., Berkman, L. F., Vieira, L. M., & Peterson, K. E. (2008).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 grow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1), 125-133.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Young, M. H. (1993).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 a longitudinal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 :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2009년 6월 30일 투고, 2009년 8월 31일 수정
2009년 9월 11일 채택